

노사상생이 지역경제 살린다

① 빈사상태 지역경제

기아차 사상 최대 임금인상안 부결 노사갈등 넘어 지역민 상대적 박탈감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시련을 겪고 있다. 물가 폭등, 주가 폭락에 이어 자연 재해까지 겹쳤다. 여기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생산불량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사관계 또한 불안하다. 특히 지역경제를 지탱해준 기아자동차마저 사상 최대 임금인상안을 거부한 채 파업을 예고해 답답하다.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노사상생' 밖에 없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시리즈로 짚어본다.

삼성전자의 해외 현지화 전략에 따라 광주사업장의 생산불량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협력업체들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지난달 허용된 복수노조는 금호고속·금호타이어 등 대규모 사업장은 노사(勞使)·노노(勞勞)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27일 사상 최대 임금인상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하면서 파업 먹구름에 싸였다.

'상생', '동반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아쉽다.

지난해 20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타결한 기아차 광주공장은 50만대 생산까지 노사가 합의해 사상 최대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덩달아 협력

업체의 매출 상승까지 가져와 지역 경제 발전의 흐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노사 상생이 만들어낸 결과다.

하지만 물들어 노사 상생 분위기는 흐려졌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위크아웃 중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맞서 사측은 직장폐쇄를 하면서 지역경제는 흥역을 치렀다.

지난달 허용된 복수노조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지봉 세 노조'가 된 금호고속은 노사 대립에 이어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믿었던 기아차마저 노조가 사상 최대 임금인상안을 거부한 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물 상반기에

도 지역 1등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물들어 7월까지 29만 1699대를 생산해 지난해 같은 기간(20만7894대)보다 40.3%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생산 목표인 48만3000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에 부응해 서인지 물에 임금 교섭도 지난해 무분규 타결에 이어 순조로웠다.

과거와 달리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탐색전을 피하고, 곧바로 집중교섭을 통해 16일만에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역대 최단기간으로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아차 노사는 11일 임금협상을 재개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노조는 12일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수순에 돌입한 예정이다. 또 13일부터 주말특근을 거부하기로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증시 급락 및 경제위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불안한 환율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들의 환차손 등 지역경제는 여전히 험난하다.

전영복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아차 등 대기업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야 한다"며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아차가 앞장서 노사 평화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표준요금제의 경우 기본료가 1만2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하되며 4만5000원, 5만5000원이던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기본료도 각각 4만4000원, 5만4000원으로 내려간다. KT의 기본료 인하 폭과 문자메시지 무료제공 건수는 앞서 요금 인하안을 발표한 SK텔레콤과 같은 수준이다.

KT는 또 음성과 문자, 데이터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는 기존 스마

다. 사상 최대 기아차 성과급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봉보다 많았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는 이같은 예상과 기대를 뒤엎고 잠정합의안은 부결시켰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은 박탈감에 분노했다.

기아차 노사는 11일 임금협상을 재개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노조는 12일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수순에 돌입한 예정이다. 또 13일부터 주말특근을 거부하기로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증시 급락 및 경제위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불안한 환율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들의 환차손 등 지역경제는 여전히 험난하다.

전영복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아차 등 대기업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야 한다"며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아차가 앞장서 노사 평화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표준요금제의 경우 기본료가 1만2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하되며 4만5000원, 5만5000원이던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기본료도 각각 4만4000원, 5만4000원으로 내려간다. KT의 기본료 인하 폭과 문자메시지 무료제공 건수는 앞서 요금 인하안을 발표한 SK텔레콤과 같은 수준이다.

KT는 또 음성과 문자, 데이터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는 기존 스마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12일부터 진행될 올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앞서 선물세트 품평회를 진행하고 추석행사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추석 선물세트 품평회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12일부터 진행될 올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앞서 선

KT 기본료 1000원↓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10월부터 통신료 인하

KT가 10월 중으로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고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

선통신요금 인하안을 발표했다.

KT는 11일 "10월 중으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제에 상관없이 매월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고 11월부터 모든 고객에게 월 50건의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표준요금제의 경우 기본료가 1만2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하되며 4만5000원, 5만5000원이던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기본료도 각각 4만4000원, 5만4000원으로 내려간다. KT의 기본료 인하 폭과 문자메시지 무료제공 건수는 앞서 요금 인하안을 발표한 SK텔레콤과 같은 수준이다.

KT는 또 음성과 문자, 데이터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는 기존 스마

트폰 요금제의 단점을 보완해 고객이 사용 패턴에 맞게 음성, 문자, 데이터 월정액을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모듈형 요금제)

도 10월 도입하기로 했다. KT는 모듈형 요금제를 통해 고객마다 월평균 3500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KT가 보유한 유무선 토클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상인이나 저소득층의 음성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는 FMC(유무선통합) 무제한급 요금제도 12월 내놓을

계획이다. 와이파이존에서 휴대전화로 저렴한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FMC 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보유한 KT 고객이 기본료에 8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FMC간 무제한 음성통화, KT망내 유무선 무제한 음성통화를 즐길 수가 있다. KT망 밖으로 통화하면 최대 3000분까지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3G망에서 통화해도 50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임금협상 또 결렬…노조 파업 수순

기아자동차 노사가 11일 임금 재협상을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일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노사가 임금교섭을 재개했지만, 노조 층은 사측의 주가 제시 안이 없다는 이유로 30분만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달 27일 임금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2주만에 노사가 협력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차를 좁힐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추가교섭안을 내놓아야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이 반해 사측은 이미 사상 최대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만큼 추가안 제시는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를 신청하고, 13일부터 특근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개한 임금 재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물에 임금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시인이 없어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을 의미가 없었다"면서 "일단 노동쟁의를 신청하고, 사측이 추가안을 내놓아야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이 반해 사측은 이미 사상 최대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만큼 추가안 제시는 어렵다고 맞섰다.

기아차는 지난 2009년 노조 집행부 선거로 인해 임금협상이 과행을 거듭한 끝에 해를 넘겨 그 이듬해 1월 체결된 적이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연내 타결도 어려울 수 있다"며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집행부 선거가 시작되면 임금협상은 중단되고 노조는 선거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개한 임금 재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물에 임금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특히 다음달 노조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2009년 노조 집행부 선거로 인해 임금협상이 과행을 거듭한 끝에 해를 넘겨 그 이듬해 1월 체결된 적이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연내 타결도 어려울 수 있다"며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집행부 선거가 시작되면 임금협상은 중단되고 노조는 선거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개한 임금 재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물에 임금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장인 796명 설문

직장인이 회사 사장으로 모시고 싶은 인물 1위에 안철수 서울 대 응답과 기술대학원장(사진)이 꼽혔다.

답도 8.7%에 달했다. 또 응답자 91.1%는 '사장의 본심이 궁금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사장의 본심이 궁금했던 경험 있다'고 답했고,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사장의 본심으로는 '정말 직원을 기죽이거나 차별화를 시도하는가'(37.4%), '내년에 연봉을 올려줄 용의가 있나' 23.7%, '무능한 팀장을 계속 신임하는 이유는'(16.1%), '왜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나'(12.1%)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직장인 796명 설문

직장인이 회사 사장으로 모시고 싶은 인물 1위에 안철수 서울 대 응답과 기술대학원장(사진)이 꼽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11일 남녀 직장인 7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장으로 모시고 싶은 인물을 묻는 질문에 안 교수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45.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그맨 유재석(25.1%), 스티브 잡스 애플 CEO(12.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 등 순이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장이 되면 다 똑같다'는 응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신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 암자: 470,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 대 지 : 250평(30×8코너)
- ▶ 기수: 32m, 세로: 26m (분할가능)
- ▶ 급 매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금매

-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 8. 9. 10.9m
- ▶ 호이스트 : 유, 유, 유
- ▶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016-644-4265, FAX: 523-8558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 중개 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한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 사거리)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